

시연施連의 현조실록탐험賢祖實錄探險

향약 만들어 전후戰後의 경주 향촌을 안정시킨
임란의병장壬亂義兵將 구사재공(九思齋公,1556~1636)



권오신
좌윤공파중회장·갈림나스트

임진왜란(壬辰倭亂) 7년 전쟁 동안 조선인(朝鮮人) 60만 명이 희생됐다. 당시 인구의 10% 가까이가 왜군(倭軍)으로 부터 희생되거나 일본에 끌려갔다. 전후 조선(朝鮮) 백성들의 삶, 달아난 민심(民心)이 돌아오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려 도독 짙은 예사고 겹치하면 이웃 간에 싸움을 벌여 팔다리가 부러지는 등 참극이 여기저기서 일어나는 등 혼란한 사회 분위기로 사람을 피하는 사례가 두드러졌다.

전후 극도로 혼란해진 분위기를 바로 잡기 위해 향약(鄕約)을 만들어 민심을 바로잡는데 앞선 현조(賢祖)가 화왕산(火旺山) 전투를 끝으로 귀향하신 의병장(義兵將) 구사재공(九思齋公)이다.

자는 백원(伯元), 호가 구사재(九思齋, 휘諱 복시復始)다.

조선의 6대 임금 단종(端宗)의 이모부이자 문종(文宗)과 동서지간이었던 죽림공(竹林公, 휘諱 산해山海)의 5대손이시니 판관공(判官公, 휘諱 철순哲孫)의 현손, 보공부장(保功部將, 휘諱 민敏)의 증손, 휘諱 순경舜卿공의 손자, 천사부장(天使部將, 오위의 종육품 벼슬) 휘諱 영(寧)공의 아드님으로 명종 11년(1566) 경주(慶州) 강동(江東)에서 태어나셨다.

판관공(判官公, 휘諱 철순哲孫) 세보에도 명종이 재위했던 병진년 경주부 강동 출생으로 기록됐다.

부산 대대로 전투 순절 의병장 오모재공(五慕齋公, 휘諱 복흥復興)과는 4촌 간이다. 사정공(司正公, 휘諱 수해壽海)계 의병장들과는 유복을 갖보어낸 사이.

눈을 뜨고 있는 시간엔 책을 놓지 않은 학행(學行)이 한양(漢陽)까지 알려져 임금 선조(宣祖)는 청년 구사재공(九思齋公)에게 봉직랑(奉直郎) 사재감절정(司宰監僉正, 관가나 궁중의 음식을 책임지는 자리)을 제수했을 만큼 공의 學才는 경주부(慶州府)를 넘어 한양까지 알려졌다.

1592년 임진왜란(壬辰倭亂)이 일어난 며칠 만에 경주(慶州)성까지 무너졌다. 당시 경주부윤(慶州府尹)이 가족들을 데리고 죽장에 숨어 버린 절체절명(絶體絶命)의 위기를 보고 분연히 장의하셨다. 37살.

구사재공(九思齋公)이 경주慶州 월성月城 동쪽 남산南山 산허리에 진을 치고 북상하는 왜적(倭敵)의 식량(食糧) 보급로(補給路)를 끊은 전투가 창 의 두 달여 만에 맞붙은 첫 전투였다.

임진년(壬辰年) 7월 27일에 시작된 영천성(永川城) 탈환전(奪還戰)에서 구사재공(九思齋公)은 비슷한 시기에 장의했던 권사민(權士敏), 권응생(權應生), 최진립(崔震立), 김춘용(金春龍), 이눌(李訥) 등 경주지역 의병장 30명



구사재

과 권여정(權汝精), 김견룡, 김원룡, 이대입 등 연일(延日) 흥해(興海) 의병장 48명이 총출동한 탈환 작전에서도 선봉에서 전투를 이끄는 군공을 세웠다.(경주부慶州府의 임진항쟁사壬辰抗爭史)

그해 9월 구사공제(九思齋公)은 신의 손을 가졌던 화포공 이장손(李長孫)이 발견(發見)한 비격진천뢰(飛擊震天雷)를 앞세운 경주읍성 탈환전(奪還戰) 때는 판관(判官) 박의장(朴毅長)과 작전계획(作戰計劃)을 세웠는가하면 금강대(兄山江) 전투에서 왜적의 허리를 끊어 작전을 성공시킨 주장(主將)이었다.(최효시崔孝軾 저著 경주부慶州府의 임진항쟁사壬辰抗爭史, 217쪽)

선조(宣祖) 30년 휴전협정(休戰協定)이 결렬되자 왜장 기요마사가 14만 명을 이끌고 재침략(侵略)한 정유재란(1597년) 때는 망우당(忘憂堂) 의병전에서 화왕산성을 사수, 영남좌도 백성들의 생명을 지켰다. 공(公)의 전공은 ‘화왕동고’에도 기록됐다.

구사재공(九思齋公)은 전란 이후가 더 빛났다. 경주부(慶州府)에 돌아오는 날로 규풍소(紉風所)를 설치하고 우선 공씨가 사는 동네부터 지킬 동안(洞安: 향약과 같은 성격)을 만드는 한편으로는 여씨향약(呂氏鄕約,宋나라 때 마을을 다스린 규약)을 알기 쉽게 편찬(編纂), 7년 전쟁으로 흐트러진 백성들의 민심과 미풍양속을 바로 잡는 데 힘썼다.

선조(宣祖) 31년, 구사재공이 이끈 ‘상동계(上洞契)’가 뿌리를 내리는 마을마다 민심이 밝아지고 생활도 점점 전쟁 전으로 돌아왔다.

임진왜란(壬辰倭亂) 7년간 경주부(慶州府)는 부산으로 상륙, 해상 이동로를 포기한 왜적의 주력군이 통과하고 주요 보급로가 뚫으로써 왜병(倭兵)의 상주 지역이 됐다. 의병과 싸움이 잦은 만큼 백성들의 피해가 극심했었다.

이로 인해 백성들의 삶이 흉흉해져 한 줌의 쌀을 얻기 위해 자식을 버리는 일들이 속출하고 관리들은 공명첩을 팔아 군비를 모으는 과정에서 백성들과 충돌하는 현상(매한梅軒 권사민權士敏의 상소에서 발췌)이 질어져 민심이 극도로 혼란에 빠진 지역이었다.

이런 현실을 딛고 규풍소(紉風所)를 설치, 동안(洞安: 향약과 같은 성격)을 만들고 여씨향약(呂氏鄕約,宋나라 때 마을을 다스린 규약)을 실행, 백성들의 미풍양속을 바로잡는 노력 1년여 만에 민심이 돌아서는 것을 확인하신 구사

재공(九思齋公)은 그 즉시 후학(後學) 교육에 힘썼다.

영남관찰사(嶺南觀察使)의 장계를 통해 이 사실을 알게 된 선조(宣祖) 임금은 그 즉시 윤음(綸音, 왕이 신하나 백성에게 내리는 말)을 내렸다.

당시 구사재공이 편찬(編纂)한 향약(鄕約)을 간주려 보면 ①1598(선조 31년)말 향내 자치제 실시 ②안동권씨(安東權氏) 국당문중(菊堂門中), 아산장씨(牙山蔣氏) 유금문중, 월성최씨(月城崔氏) 국당문중, 서산류씨(瑞山柳氏) 중명문중, 신광진씨(神光陳氏), 오천정씨(烏川鄭氏) 빈암 문중 등 여섯 성(姓)의 문중과 협력 체제를 구축. ③여섯 문중의 협의체로 구성된 상동(上東) 협약체를 통해 공씨가 편찬(編纂)한 상동향약(上東鄕約)을 선포했다. ④시행(施行) 절차는 선악(善惡)을 명확하게 살포 상벌(賞罰)을 내리는 등 제정(制定)된 규약(規約)대로 밀고 나간 1년여 만에 7년 전쟁에서 흐트러지고 파괴화된 향리(鄕里)마다 민속이 바로잡히기 시작, 윤리(倫理)가 돌아오고 백성들의 생활이 안정을 되찾았다고 기록됐다.

당시 향약소에서는 의관(衣冠, 옷과 갓을 차려입은 남성 정장)을 차려입은 선비들이 윤음함(綸音函)을 열고 선조(宣祖) 임금이 내린 윤음(綸音)을 읽은 후부터 평좌(平坐)로 규약을 논의하는 엄숙한 분위기가있었다고 한다. 1년이 지나면서 경주향내(慶州鄕內)에서 손실(損失)되었던 향촌(鄕村) 문화가 회복(回復)되는 조짐이 나타났다고 한다.

구사재공(九思齋公)은 인조 13년(1636) 여든 살 나든 해 향리에서 생(生)을 놓으셨다. 포항시 기계면(杞溪面) 관암(冠岩) 효주봉(孝主峯) 아래에 해좌(亥坐, 북북서를 등지고 남동쪽을 바라보는 방향)로 내외분(内外分)이 합편(合筵) 됐다. 주서(州西) 유석우(柳奭佑)가 비문을 지었다.

영인(令人, 정사품 종사품 문무관의 부인에 게 내리는 품계) 옥산장씨(玉山張氏 부父 진사進士 시업시業)사이에서 휘諱 필창必昌공과 형(鎰), 약(鑰) 감(鑑) 공이 닳고 두 딸은 이양성(李養性)과 진사(進士) 오졸(吳黻) 공에게 출가했다.

인조 16년(1638) 후손들이 일생을 두고 지켰던 경주부(慶州府) 국당(菊堂)에 서당(書堂)과 사당(祠堂)을 건립했으나 철종 13년(1862) 화재로 묘우(廟宇)와 고귀(高貴)한 서지(書誌)가 불타 버렸다.

1923년 경주 향중 공의(公儀)로 구사재정사(九思齋精舍)를 새로 지어서 후손들의 배움터로 활용되었으며 1960년 현재 장소로 이전, 건립됐다.

〈자료출처資料出處: 구사재연보九思齋年譜, 경주부慶州府의 임진항쟁사壬辰抗爭史, 동경읍지東京邑誌, 매한실기梅軒實記, 경주유교문화유산慶州儒敎文化遺蹟, 판관공세계보判官公世系譜, 안동권씨대동보安東權氏大同譜〉



성군관 전세시典禮師 능소能素 권정택 權貞澤

제사음식, 제수 진설

㉠제수(祭羞)：제수(祭需)과일류

전통적으로 제사에 쓰는 과일은 대추 밤 감, 배였으므로 이것들을 꼭 준비하고 그밖에 계절에 따라 사과, 수박, 참외, 석류, 귤 등의 과일을 1~2종 준비하면 충분하다. 바나나, 파인애플, 키위 등 생소한 수입 과일은 일절 사용하지 않도록 한다. 옛날에는 과일이 자산(地産)이라 하여 그릇 수를 읍수인 짝수로 하였다.

포(脯) 고기를 말린 육포, 생선의 껍질을 벗겨서 말린 것, 문어나 마른오징어 중에서 한두 종류를 사각의 접시에 한 그릇만 담는다. 옛날에는 문어 다리나 오징어를 가위나 칼로 왕관, 산호, 공작 깃의 형태로 으러서 장식하기도 했으나 오늘날에는 생략하기도 한다.

진설(陳設) 제수 진설에도 말이 많다.

여북해서 ‘남의 제사에 굶감 놓아라. 대추 놓으라 참견 말라’는 말이 나왔으며. ‘깍아 놓아라. 굴러간다’라는 풍자까지 생겼을 정도이다.

대한한사전(大漢韓辭典)에 조(藪)(대추조)를 찾아보면 ‘조동울서(藪東栗西)’라고 되어있으나 예문(禮文)에는 없는 말이다.

또 홍동백서(紅東白西)라 하나 이것도 찾아볼 수 없다.

예문(禮文)에는 조서틀차(藪西栗次)라 했을 뿐이다.

퇴계(退溪)는 ‘어동육서(魚東肉西)로 생동숙서(生東熟西)와 적유삼종(炙有三種)(어축치(魚縮雉))이며, 어육(魚肉)은 천산(天産)이라 양(陽)이니 기수(奇數)요. 과과(果穀)은 자산(地産)이라 음(陰)이니 우수(偶數)라 약가빈난분(若家貧難辨)칙의 음양수(則依陰陽數)하여 멸품(滅品)도 미유불가(未有不可)’라 하였다.

지적(雉炙)은 계적(鷄炙)으로 대용한다.

또 사계(沙溪)는 ‘상례비요(喪禮備要)의 진설도(陳設圖)는 판본(板本)의 우두머리(誤也)’라 하였고, 퇴계(退溪)는 묘사(墓祀)에는 진 잔례(進饌禮)가 없으나 반갱(飯羹) 불용(不用)도 무방하다고 하였지만, 구봉(龜峰)은 원야례(原野禮)에도 반갱(飯羹)이 있으니 반갱(飯羹)을 아니 써서는 안 되며, 종헌(終獻) 때 계

제사비요(祭祀備要)

반개(啓飯蓋)하고 삼시(挿匙) 후에 부복하라고 하였다.

진설 요령은 집사자(執事者)의 좌(左)가 서(西)요 우(右)가 동(東)이다. 따라서 재상의 앞이 남(南)이 되고 뒤가 북(北)이 된다.

남(南)에는 제상 앞 중앙에 향탁을 놓고, 그 동(東)편에 주尊상(酒樽床), 서(西)편에 축(祝)탁을 놓는다. 향탁 위에는 후면 중앙에 모사를 놓고 그 뒷줄에 함동 로서(盒東爐西)로 향합과 향로를 놓고, 주尊상 위에는 강신잔반(降神盞盤), 퇴주그릇 주전자 술병을 놓고, 향탁 앞에 배석(拜席)이며 북면(北面) 중앙에 신위(神位)인데 고서비동(考西毗東)이다.

제상 남단이 제오행(第五行)으로 실과인데, 생과(生果)가 서(西)편, 조과(造果)는 동(東)이며, 사행(四行)이 채(菜)(나물), 삼행(三行)이 탕(湯), 이행(二行)이 적(炙), 일행(一行)이 반갱(飯羹)이다. 사행(四行) 양 끝에 ‘좌포(左脯) 우혜(右醢), 이행(二行) 양 끝에는 ‘좌면(左麵) 우병(右飮), 일행(一行)에는 좌단(左端)으로부터 ‘시접(匙 접) 반(飯) 잔(羹) 갡(羹) 초(醕)’가 되고, 합설시(合設時)에는 ‘반(飯) 잔(羹) 갡(羹) 시접(匙 접) 반(飯) 잔(羹) 갡(羹)’이 된다.

혜(醢)는 젓갈. 적(炙)은 어적(魚炙) 육적(肉炙) 치적(雉炙)이 있는데 치적(雉炙)은 계적(鷄炙)으로 대용한다. 그리고 탕(湯)은 어탕(魚湯), 육탕(肉湯), 채탕(菜湯)이 있는데 제수는 살림 형편과 그때그때 사정에 따를 것이지 수량에 구애될 필요는 없다. 제수의 가지 수 보다는 고인을 기리는 정성이 담겨 있어야 한다.

제사상 진설(陳設)법은 각 지방의 관습에 따라 다른 점이 많이 있으나 일반적으로 우리나라 향교에서 관하는 제사상 차리는 법을 많이 따르고 있습니다. 진설하는 위치를 말할 때는 편의상 제사 지내는 신위를 향하여 우편을 동쪽, 좌편을 서쪽으로 정합니다. 북쪽에 병풍을 치고 병풍 앞에 신위를 모실 위패(位牌)와 촛대를 마련한 다음 식어도 관창은 음식부터 제물을 차리고 진설이 다되면 사진 혹은 미리 써둔 지방을 위패에 붙입니다. 제사상 앞 가운데 위치한 향상에는 축문, 향로, 향합을 올려놓으며 그 밑에 모사(茅沙)그릇, 퇴주그릇, 제수(술)등을 놓습니다.

진설하는 방법에서 기본이 되는 몇 가지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반서갱동(飯西羹東) 맑은 서쪽(왼쪽) 국은 동쪽(오른쪽)에 위치한다. 즉 산 사람의 상차림과 반대이다. 수저는 중앙에 놓는다. ㉡적전중앙(炙奠中央) 적은 중앙에 위치한다. 적은 옛날

에는 술을 올릴 때마다 즉석에서 구워 올리던 제수의 중심 음식이었으나 지금은 다른 제수와 마찬가지로 미리 구워 제상의 한가운데 놓는다. ㉢좌포우혜(左脯右醢) 4열 좌측 끝에는 포(북어,문어,전복)를 놓고 우측 끝에는 젓갈을 놓는다. ㉣어동육서(魚東肉西) 생선은 동쪽에 놓고 육류는 서쪽에 놓는다. ㉤두동미서(頭東尾西) 생선의 머리는 동쪽을 향하게 하고 꼬리는 서쪽을 향하게 놓는다. ㉥홍동백서(紅東白西) 과일 중에 붉은색 과일은 동쪽에 놓고 흰색 과일은 서쪽에 놓는다. ㉦조울사이(棗栗柿梨) 조울사이라 하여 좌측부터 대추, 밤, 감(곶감), 배(사과)의 순서로 놓는다.

㉧좌면우병(左麵右飮) 2열 좌측에 국수를 우측에 떡을 놓는다. ㉨생동숙서(生東熟西) 4열 동쪽에 김치를 서쪽에 나물을 놓는다. ㉩건좌습우(乾左濕右) 마른 것은 왼쪽에 젖은 것은 오른쪽에 놓는다. 진설하는 열은 모두 5열로 하며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합니다. ㉪제1열은 술잔과 메(밥), 떡국(설), 송편(죽식)을 놓는 줄 앞에서 보아 떡국(송편)은 우측에 술잔은 좌측에 차린다. 시접(수저와 대접)은 단위제의 경우 앞에서 보아 왼쪽에 올리며, 양위합제의 경우에는 중간 부분에 올린다. ㉫제2열은 적(炙)과 진(醢)을 놓는 줄 대개는 3직으로 육적(육류 적), 어적(어패류 적), 소적(두부 채소류 적)의 순서로 올린다.

적：생선이나 고기를 대조羹이여 꿰어서 양념하여 구운 음식. 전：재료에 밀가루를 묻혀서 프라이팬에 볶인 음식(부침개). ㉬제3열은 탕을 놓는 줄 대개는 3탕으로 육탕(육류탕), 소탕(두부,채소류탕), 어탕(어패류탕)의 순으로 올리며, 5탕으로 할 때는 봉탕(닭, 오리탕), 잡탕 등을 더 올린다. 한 가지 탕으로 하는 경우도 많이 있다. ㉭제4열은 포와 나물을 놓는 줄 좌측 끝에는 포(북어, 대구, 오징어포)를 쓰며 우측 끝에는 식혜나 수정과를 쓴다. 그 중간에 나물 반찬은 콩나물, 숙주나물, 무나물 순으로 올리고 삼색 나물이라 하여 고사리, 도라지, 시금치나물 등을 쓰기도 하며 김치와 청장(간장), 침채(동치미, 설명절)는 그다음에 올린다. ㉮제5열은 과실을 놓는 줄 동쪽부터 대추, 밤, 감(곶감), 배(사과)의 순서로 차리며 그 이외의 과일들은 정해진 순서가 따로 없으나 나무 과일, 덩굴 과일 순으로 차린다. 과일 줄의 끝에는 과자(유과)류를 놓는다. 〈다음호에 계속〉

국기원, 권기식 한중도시우호협회장 자문위원 위촉

태권도 명예 6단 단증도 수여

국기원(이사장 전갑길)은 26일 권기식 한중 도시우호협회장을 자문위원으로 위촉했다. 전갑길 이사장은 이날 오후 국기원에서 열린 자문위원 위촉식에서 권 회장에게 위촉패를 전달하고 태권도 세계화를 위해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전 이사장은 “한중 관계를 포함한 국제 교류분야에서 큰 성과를 거둔 권 자문위원이 태권도 국제교류 활성화를 위해 큰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동섭 국기원장은 권 회장에게 태권도 명예 6단 단증을 수여했다.

권 회장은 “세계 태권도의 흥분부인 국기원의 자문위원을 맡아 태권도의 세계화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권 회장은 2018평창동계올림픽 민간단체 협의회장을 맡아 평창동계올림픽 유치를 위한 100만명 서명운동을 성공시키는 등 체육계 발전을 위해 노력해왔다.



국기원 자문위원 위촉식 후 기념사진을 찍은 권기식 한중도시우호협회장(왼쪽)과 전갑길 국기원 이사장

국기원은 태권도 세계화를 위해 지난 1972년 설립된 특수법인으로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 운영과 단증 수여업무 등을 맡고 있어 전 세계 1억5천만 태권도인의 흥분부 역할을 하고 있다.

편집국장 권행완

권영탁 핑크 대표이사 연임



정보통신과 금융을 양수겸장한 CEO 권영탁

권영탁(검교공파, 34세) 핑크 대표이사가 두 번째 연임에 성공했다. 코로나19라는 불확실한 경영환경 속에서도 차별화된 서비스와 조직을 안정적으로 이끈 점을 인정받았다.

핑크는 인공지능(AI)을 기반으로 하는 금융 플랫폼으로 맞춤형 자산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이다.

권영탁 대표는 핀테크 업계에서 정보통신(IT)과 금융 분야 양쪽에서 두루 경력을 쌓은 CEO이다.

이를 기반으로 권영탁 대표가 쌓은 주목할만한 업적은 업계 최초로 금융에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게임을 접목한 ‘핀크리얼리’를 들 수 있다.

핀크리얼리는 신개념 서비스로 자체 기술과 아이디어로 개발하여 특허 출원까지 마친 상태다. 권영탁 대표는 2019년 7월부터 핑크의 수장을 맡아 왔다.

편집국장 권행완

능동 신도비각 경내 팔각정 준공



대중회 안동사무소는 지난 5월 25일 능동제사 입구 구 신도비각(권태사길 17-4) 경내 송림 안에 시조 태사공 묘소 참배객과 지역주민들이 공동으로 사용할 아담한 팔각정을 준공하였다.

이 사업은 지난해 이 지역 서후면장(권재인, 37세)의 제안으로 부지는 안동권씨 대중회에서 제공하고 문화재청상변경 심

의를 거친 후 시비 3천여만원을 투입하여 금년 4월 20일에 착공하여 5월 25일 준공했다.

팔각정이 준공됨으로써 능동을 찾는 많은 관광객들도 이용할 수 있게 되어 향후 “삼태사 둘레길” 정비 및 조경사업도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권오의 대중회 안동사무소 사무국장